

빙속 스타들 전국체전서 마지막 리허설



D-30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빙속여제' 이상화(스포츠토도)가 동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출전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경기에 나서 컨디션을 조율하겠다는 생각이 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백철기 감독은 11일 "이상화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기로 했다"며 "올림픽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실전 대회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화는 평창올림픽 여자 500m, 1,000m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선 주 종목인 여자 500m에만 출전한다.

메달 가능성이 큰 여자 500m 준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도 1,000m를 500m를 준비하기 위한 보조 종목으로 삼았다.

500m 종목을 앞두고 몸을 풀거나 현장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1,000m에 출전했다. 전국체전에선 굳이 1,000m에 출전할 필요가 없다.

이상화 오늘 500m 출전

김보름·박지우 매스스타트

모태범·고교생 김민석도

이승훈·정재원은 훈련 소화

이상화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전국체전 여자 500m는 12일 태릉 국제빙상장에서 열린다.

전국체전엔 이상화 외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김민석(의정부시청)과 김현영(성남시청), 박승희(스포츠토도)도 여자 500m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은 12일 매스스타트와 여자 5,000m에 출전한다.

지난 11월 월드컵 대회 중 허리를 다친 김보름은 지난달 종합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지만, 부상 여파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회복에 전념한 김보름은 전국체전을 통해 회복 경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보름과 함께 평창올림픽 매스스타트에 출전하는 박지우(한국체대)도 전국체전 매스스타트에 나선다. 평창올림픽 팀추월에만 나서는 노선영(콜핑팀)도 매스스타트에 출격한다. 단거리 선수 김현영도 매스스타트를 신청했다.

남자 대표팀 간판 이승훈(대한항공)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

/연합뉴스

막내 정재원(동북고)만 전국체전에 불참한다. 이유가 있다.

백철기 감독은 "두 선수는 현재 매스스타트에 대비해 쇼트트랙 경주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실전경기에 출전하는 것보다 좀 더 손발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체전은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훈과 정재원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태릉 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약 열을 만에 다시 실전경기를 치르는 것보다 조용히 훈련을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고교생 '빙속괴물' 김민석(평촌고)은 남자 1,500m와 5,000m, 매스스타트에 나선

다.

모태범(대한항공), 차민규(동두천시청), 김태운(서울시청), 정재용(동북고), 김준호(한국체대)는 모두 남자 500m와 1,000m에 출격한다.

전국체전은 12일부터 14일까지 태릉국제빙상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北 참가회의 참석”

유승민 IOC 선수위원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멤버로 활동 중인 유승민(36·사진) IOC 선수위원이 2018 평

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데 동참한다.

유승민 IOC 위원은 1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20일 스위스 로잔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15일 출국회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OC는 오는 20일 로잔 본부에서 대한체육회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승민 위원은 "북한의 장웅 IOC 위원과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IOC와 남북 등 삼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로잔 회의에 참석해야 내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IOC 회의 참석과 평창 홍보 등으로 상당히 바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폐회식 보며 추위에 떨지 마세요

올림픽 플라자에 '510m 방풍막'…히터 세우고 보온용품 지급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가 때서온 북서풍으로부터 관중을 보호할 '510m 방풍막'을 입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1일 "지난달 말부터 올림픽 플라자 2~3층 관람석 사이에 바람을 막아줄 방풍막 공사를 시작해 오는 15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풍막 설치와 더불어 곳곳에 난방용 히터를 세우고 보온 용품을 지급해 추위로부터 관중을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림픽 플라지는 지붕이 없는 5각형 모양의 개방형 건물로 관중들이 한겨울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난방 대책이 시급했다.

올림픽 플라자가 자리잡은 강원도 대관

령면 황거리 일대는 지난 10년간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도였다. 2008년에는 영하 14.8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개막식은 2월 9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데 기온이 영하 7.7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개막식을 찾은 3만 5000여명의 관중은 혹독한 평창의 2월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G-100을 기념해 올림픽 플라지에서 열린 콘서트 현장에서도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직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림픽 플라지의 2~3층 관람석 사이의 '바람길'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2층 바람길에 설치된 방풍막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높이 3.5m에 총길이는 510m에 이른다. 또 관중석 상단 난간에도 타폴린 재질로 1.5m 높이에 총 500m 길이로 방풍막을 설치했다.

조직위는 또 관중 모두에게 우의, 무릎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용품 세트를 제공한다. 또 일반 관람객 좌석 주변에 50㎡당 1대씩 히터 40대를 설치하고, 관중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위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에 대비해 의료시설도 늘린다. 조직위는 애초 응급 의료시설을 두 군데 만들기로 했지만 3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고, 119 구급대도 상주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평창 가려고 IOC 선수위원 그만 뒀는데…

바이에슬론 전설 비에른달렌

월드컵 42위로 탈락 위기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까지 그만둔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44·노르웨이·사진)이 평창행 티켓을 놓칠 처지에 놓였다.

비에른달렌은 10일(현지시간) 독일 루폴딩에서 열린 2017-2018 BMW 국제바이에슬론연맹(IBU) 월드컵 5차 남자 개인 종목에서 42위에 그쳤다.

이번 경기에서 최소 6위에 올라야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에른달렌은 사격에서 3발을 놓치며 중위권으로 밀려났다.

경기 후 비에른달렌은 "세 번째 사격에서 두 차례 표적을 놓쳤다. 그때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낙담했다.

비에른달렌은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2014년 소치 대회까지 6번의 올림픽에서 13개(금 8개, 은 4개, 동 1개)의 메달을 획득,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발판삼아 2014년 소치올림픽 기간에 선수에게 최고의 영예인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비에른달렌은 당초 2016년 오슬로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치른 뒤 선수 은퇴를 선언하려 했다.

그러나 비에른달렌은 그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뒤

"여전히 세계 정상을 지킬 자신이 있다"며 은퇴를 번복했다.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2016년 4월에는 IOC 선수위원까지 사퇴했지만 '바이에슬론의 전설'도 흘러가는 세월은 비껴가지 못했다.

비에른달렌의 2017-2018시즌 월드컵 최고 순위는 18위다. 분위가 반전이 필요했던 4차 월드컵에서는 스프린트 52위, 추적 36위로 부진했다.

비시즌에는 노르웨이 대표팀 합숙훈련에서 빠져 뒷말을 듣기도 했다. 대신 그는 소치 여자 바이에슬론 3관왕이자 아내인 다르야 돌라체바(벨라루스)와 따로 훈련했다.

아르네 보탄 노르웨이 바이에슬론 대표팀 감독은 "비에른달렌은 무인승차할 수 없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며 올림픽 자력 진출이 사실상 무산된 비에른달렌을 억지로 선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대표팀은 14일 남자 바이에슬론 대표선수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전국 최고의 빙벽코스를 자랑하는 춘천 구곡폭포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희망하는 30m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춘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춘천 한빛산악회에서 마련해 진행했다.

/강원일보=박승선 기자